

임실~인천공항 버스 운행중지

전주로 나가 환승하는 불편 겪고 시간적·경제적 부담 증가

임실~전주~인천공항을 운행하는 시외버스 노선이 1일부터 전격 운행이 정지됨으로써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지역민들의 큰 불편이 예상되고 있다.

임실~전주~인천공항 시외버스 노선은 지난해 10월 6일부터 도내에 있는 2개 버스회사가 1일 6회 운행할 것을 인가하고 지난달 말까지 임실군민을 비롯한 인근 순창군민들이 이용, 해외여행하는데 주민 편의 증진에 기여해 왔다.

그러나 지난 1일부터 운행이 중단됨으로써 임실에서 인천공항으로 직접 운행하는 시외버스의 경우 2시간

70원으로 저렴하고 3시간 40분의 소요시간으로 비교적 군민들의 편익을 도모해 왔으나 운행이 정지됨으로써 일반버스를 이용 전주로 나가 인천공항행 버스를 환승해야 하는 불편함은 물론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인 부담으로 주민들의 반발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특히 임실~인천공항 버스 노선이 운행하지 않을 때는 임실에서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전주에서 한 정면허 사업자가 독점 운행하는 모 버스를 이용하면서 차량 환승에 따른 교통의 불편함과 운행 중 김포공항을 경유하게 돼 소요 시간이 크게 증가

하고 있는데도 주민들은 불편함을 감수하고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임실군의회 진남근 의원(00·임실읍 이도리)에 따르면 "임실군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임실~인천공항 버스 운행으로 공항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익증진에 크게 기여해 왔다"며 "특별한 사유도 없이 운행을 중지하려는 결정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이며 주민 편의를 외면한 처사다"고 말했다. 이어 진 의원은 "지금 계류 중인 인가 및 운행정지 결정 과정을 빠른 시일 내 마무리져 임실군민들의 불편을 해소시켜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군, 설 연휴 맞춤형 종합대책 마련

6일~10일까지 교통소통 및 안전대책 등 7개 분야... 귀성객 편의 최우선

순창군이 설 연휴기간 동안 주민과 귀성객들이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맞춤형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군은 이번 설 명절 기간인 오는 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주민생활과 밀접한 7개 분야에 대해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에 수립한 종합대책은 △교통소통 및 안전대책 △민생경제 및 서민생활 안전 △각종 재난 사건 사고 예방 △비상진료 및 방역활동 전개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검소하고 훈훈한 명절 분위기 확산 △엄정한 공직 근무 기강 확립 분야 등 7개 분야다.

특히 군은 이번 설 명절 종합대책이 귀성객과 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귀성객 편의 증진을 최

우선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군은 우선 명절기간 주민들이 가장 불편을 겪는 의료분야의 편의를 위해 연휴기간 동안 보건의료원 응급실 24시간 운영, 보건지소 및 진료소 12개소, 당직병의원 2개소, 당번약국 12개소를 지정된 날짜에 당번제로 운영한다. 이를 통해 응급환자 및 일반 환자가 명절기간 동안 상시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명절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당직의료기관 및 당번약국의 자세한 문의는 보건의료원 당직실 전화 063-650-5222로 하면 된다.

귀성객들의 교통편의를 위해서는 8 귀성객과 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귀성객 편의 증진을 최

우선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군은 콜린순환 시책에 걸맞게 환경오염 발생상황 대책반 쓰레기 대책반을 운영하며 명절이면 불렸던 음식물 쓰레기 수거를 8일을 제외하고 매일 시행해 귀성객에게 클린순환 이미지를 심어줄 계획이다.

또 강천산 군립공원도 7~9일까지 3일 동안 무료로 개방한다. 강천음유수취수장에도 4명의 근무인원을 배치해 주민불편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황숙주 군수는 "이번 설 명절 종합대책은 귀성객과 주민 편의를 최우선으로 추진한다"고 말했다.

/순창=구인규 기자

남원시, 예산 1697억 상반기 집행 추진

남원시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강력히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남원시의 예산총액 5,905억원(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이월액)에서 인건비, 공공요금 등을 제외한 조기집행 대상액은 3,087억원이며 이중 조기집행 상반기 목표액은 대상액의 55%인 1,697억원이다.

시는 목표달성을 위하여 조기집행 계획을 수립, 실과소 읍면동에 시달하고 고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조기집행 추진 점검단'을 운영해 1억원 이상의 주요사업에 대해 조기집행 상황을 수

시로 점검하기로 했다.

또한, 긴급입찰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선금·기성금을 최대한 지급하며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안정, SOC사업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중점 관리하여 집행할 계획이다.

이환주 남원시장은 "재정 조기집행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이월사업을 최소화하는 등 재정건전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원시는 지난해에도 조기집행 우수단체로 선정되어 행정자치부, 전라북도로부터 인센티브 8천만원을 받은바 있다.

/남원=유영철 기자

고창군, 설 전 자금 215억 집행

고창군이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재정자금 215억원을 명절 전에 집행한다.

2일 군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등 취약계층을 위한 자금과 각종 건설공사 및 용역물품대금 등을 최우선적으로 앞당겨 집행할 계획이다.

군은 재원은 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수령 자동차세(연납) 신청분 수납 등에서 300억원 정도 확보될 것으로 예상하고 예치 중인 정기예금 중 150억 원을 추가 확보하여 설 명절 전 자금 집행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임실군, 산불예방 비상태세 돌입

5월15일까지 방재단본부 설치 운영

임실군은 연중 산불발생 위험이 높은 불철 건조기를 대비해 오는 5월15일까지 산불예방 비상태세에 본격 돌입했다.

이를 위해 군은 12개 읍면사무소에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설치하고 9억3,4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선택과 집중의 산불정책 추진으로 산불피해 최소화를 위한 실질적인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또한, 대 주민 홍보를 위해 플래카드, 전단지, 깃발, 안내판 등을 주요 도로변과 주민 밀집지역에 설치했으며, 지난해 공고를 통해 34명의 산불전문 예방진화대와 12개 읍면 산불간시인력 68명을 선발 배치했다.

심민 임실군수는 "적극적인 산불 예방 및 홍보활동을 전개해 지난

7년간 관내에서 대형 산불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뤘다"며 "금년에도 이 기록을 이어갈 수 있도록 산불방지에 총력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군은 읍면 산불간시인력에 배급된 산불신고 단말기를 통해 산림청 산불상황관제시스템과 연계해 신속하고 정확한 신고체계 구축하고 산불발생시 45세 이하 군청 남자 직원 80명으로 구성된 특별진화대와 일반직원들을 단계적으로 투입하게 된다.

이들러, 전북도 입차 열기 지원 체제를 구축하고 전문교육을 이수한 산불간시반을 동원해 산불원인자를 철저히 색출, 사법 처리할 계획이다.

/임실=진홍영 기자

국비특리

임실군 '한우 배내기 사업' 추진 70세 이상 어르신 대상

임실군이 노령화로 침체된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는 '한우 배내기 사업'을 추진한다.

군이 생산적인 일감 지원을 통해 농촌 활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한우 배내기 사업'은 한우 사육이 가능한 기반시설을 갖춘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6개월령 한우 암송아지를 분양하고 30개월 이내에 당시 6개월령 암송아지 금액을 현금으로 상환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군은 1억5000만원의 군비 확보와 별도 조례를 제정하고, 배넛소 구입 및 임신과 관련해 임실축산협동조합과 업무대행 계약을 체결하는 등 시행 준비를 마치고 본격 사업에 들어갔다. 사업 선정기준은 신청 당시 한우를 사육하지 않은 농가로 마을 이장 등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임실=진홍영 기자

심민 임실군수, 국비확보 빠른행보

심민 군수가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국비확보를 위해 연초부터 정부세종청사 방문하는 등 빠른 행보에 나섰다.

심 군수는 2일 국가예산 선점을 위해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관계관들을 면담하고 농정분야 정책방향에 대한 논의와 현안해결을 위한 국비지원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또한, 강진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호암지구 배수개선사업, 임실치즈페스티벌 조성사업 등 내년도 국비확보 대상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당위성을 상세히 설명하고 예산 반영을 적극 건의했다.

군은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지난해 9월부터 3차례에 걸친 신규사업 발굴회를 비롯해 지난달 심민 군수가 직접 주재한 2017~2018년 신규사업 발굴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

농촌 빈집정비·주택개량 신청접수

고창군, 12일까지

고창군이 농어촌 지역의 노후·불량 주택 개량을 촉진해 낙후된 주거문화를 향상시키기 위한 농촌주택개량사업 및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한다.

2일 군에 따르면 농촌빈집정비사업은 1년 이상 아무도 살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농어촌 주택 또는 건축건설공사 및 용역물품대금 등을 최우선적으로 앞당겨 집행할 계획이다.

군은 재원은 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수령 자동차세(연납) 신청분 수납 등에서 300억원 정도 확보될 것으로 예상하고 예치 중인 정기예금 중 150억 원을 추가 확보하여 설 명절 전 자금 집행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기존 고정금리 2.7%에서 고정금리 2% 또는 변동금리 선택으로 변경됐다.

또한 무주택자의 경우 토지구입비(면적 600㎡이내)를 최대 7000만원까지 용자돼 주택개량자의 경제적 부담이 큰 폭으로 해소될 전망이다.

다만 단독주택의 연면적 150㎡이하인 경우에만 용자지원이 가능하며 취득세 및 재산세(5년) 면제는 주거전용면적이 100㎡이하일 경우에만 해당됨을 유의해야 한다.

농촌주택개량 및 빈집정비사업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해당 읍·면사무소에 오는 12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군청 종합민원과 주거복지팀(560-2396)으로 문의하면 된다.

/고창=김영식 기자

남원 의용소방대, 봉사활동 전개

남원소방서는 남원시·유봉읍·이백면·보월면·주생면·야영면·주현면·사매면·금지면·덕과면·산동면·인원면 등 의용소방대 23개대 400여명이 돌아오는 설 명절을 맞이하여 최근 한달간 남원시 곳곳에 독거노인, 장애인 등 불우이웃을 위해 봉사활동 및 위문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요양원, 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센터 등 명절이 더 외로운 지역아동을 중심으로 미용, 청소, 목욕봉사 등 무료봉사활동과 더불어 쌀, 라면, 화장지 등 위문품까지 전달하였다.

한편 이백면, 산동면 남성의용소방대는 관내 초등학교 졸업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다.

/남원=유영철 기자

마을과 고개를 넘어
사람과 숲을 이어주는 지리산 800리길

남원에서 만나는
지리산 800리길

남원 1972년

남원시